

B-4.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발거 예정인 치아의 자가치아이식술을 통한 결손부의 수복

서진희, 김영준, 정현주, 김옥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자가치아이식술은 매복되거나 맹출된 치아를 발치하여 같은 사람의 다른 발치와나 외과적으로 형성된 발치와에 식립하는 것으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자가 치아를 이용하여 치주인대를 보존한다는 점, 인접치의 삭제 없이 임플란트 식립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가 치아이식술의 방법으로는 발치 예정된 치아와 이식될 치아를 함께 발치하여 시술하는 one-stage technique과 발치를 먼저 시행하여 수용부의 치유를 도모한 후 이식을 시행하는 two-stage technique 등이 있으며, 전자는 한번의 시술만을 시행한다는 점 후자는 이식치의 영양공급과 연조직의 접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발치가 예정된 환자에서 시행된 자가 치아 이식술을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치주염으로 인하여 10mm이상의 치주낭과 방사선적 골소실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증례에서는 발치와 함께, 다른 한 증례는 발치 후 13일 동안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 제 3대구치의 이식을 시행하였다. 7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가진 후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두 증례에 있어서는 모두 양호한 임상 방사선적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한 증례에서는 동요도와 저작시 불편감은 호소하지 않으나 8mm의 치주낭과 방사선 투과성이 지속되어 관찰 중이다.

결론

술전 공여치아와 수용부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주의가 기울여진다면 자가 치아를 이용한 이식술은 상실된 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수복을 할 수 있는 술식이라고 평가되지만, 장기간의 예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